



행복한 성당, 하와이 한인성당

하와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Taegon Oratory

대림 제2주일

제2227호

2024년 12월 8일(다해)



오늘의 미사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루카 3,6)

▶ 입당송

보라, 시온 백성아. 주님이 민족들을 구원 하러 오신다. 주님의 우렁찬 목소리를 듣고, 너희 마음은 기쁨에 넘치리라.

▶ 제1독서: 바룩서 5,1-9

▶ 화답송

주님이 큰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 영성체송 예루살렘아, 일어나 높은 곳에 서서, 하느님에게서 너에게 오는 기쁨을 바라보아라.

▶ 제2독서: 필리피서 1,4-6.8-11

▶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 알렐루야

▶ 복음: 루카 3,1-6

미사 시간 안내

주일미사	토요일 오후 4시
	토요일 오후 7시
	주일 오전 6시 30분
	주일 오전 10시 30분
	주일 오후 4시 (St. Peter & Paul 성당)
평일미사	화, 수, 금 오전 10시 30분
	목요일 오후 7시

■ 병자성사나 봉성체를 희망하시거나 임종환자 또는 망자 발생 시에는 신속히 연령회로 연락 바랍니다.

(이영미 세실리아 Home : 808.664.0632
Cell : 808.389.1702)

- 주임신부: 이득규(바오로)
- 사목회장 : 김성연(야고보)
- 사 제 관 : (808) 422-1040
- 사 무 실 : (808) 422-1010
- 성당 주소 : 511 Main St, Honolulu, HI 96818
- 성당 이메일 : honolulukcc@gmail.com
- 홈페이지: <https://standrewkimhawaii.org>



사목 일정

1) 12월 봉성체 안내

12월 봉성체는 12월 19일(목)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병자성사나 봉성체가 필요하신 분은 아래 번호나 사무실로 연락 바랍니다. (이영미 세실리아: 664-0632, Cell 389-1702)

2) Peter & Paul 성당 파견 미사 일정 안내

12월 8일(일)	오후 4시
12월 15일(일)	미사 없음
12월 22일(일)	오후 4시
12월 29일(일)	오후 4시
01월 05일(일)	오후 4시

* 자세한 사항은 사무실로 문의 바랍니다.

3) 원죄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마리아 대축일 미사(12월 9일(월)) 안내

12월 8일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마리아 대축일 미사는 12월 9일(월) 오전 10시 30분에 미사가 있습니다. 이날 미사는 호놀룰루 교구에서는 의무 축일입니다.

4) 2024년 교무금 완납 안내

2024년을 마지막으로 보내면서 올해의 교무금을 아직 완납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적극 참여하셔서 교무금을 완납해주시길 바랍니다.

※ 새로운 교무금 카드를 12/1일부터 배부하오니 모든 신자들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목위원회

1) 예수 성탄 대축일 미사 안내

12월 24일(화) 예수성탄 대축일 전야미사	오후 8시
12월 25일(수) 예수성탄 대축일 미사	오전 10시 30분

※ 12월 25일 당일에는 새벽미사가 없습니다.
※ 예수 성탄 대축일 미사 후 음식 나눔이 있습니다. 또한 식사 후 영화 “탄생” 상영이 있습니다.

2) 유아세례 및 첫영성체 안내

12월 25일 성탄 대축일에는 유아세례와 첫영성체가 있을 예정입니다. 0세-7세 어린이가 있는 가정 중 유아세례를 받기 원하시는 가정은 12월 15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하실 때 대부모를 정해오시길 바랍니다.

3) 신부님 휴가 및 미사 안내

신부님 휴가 관계로 12월 10일(화)부터 13일(금)까지 미사가 없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남성 레지오 단원 모집 안내

남성 브레시디움인 천사들의 모후가 2025년 1월부터 주 회합을 다시 시작합니다. 12월 셋째 주일(12/15) 교중 미사 후에 컨퍼런스 룸에서 준비모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5) 주일학교 도네이션 감사드립니다.

김정남 글라라

옥 치과
일반치과, 신경치료, 응급치료 메디케어 제공 / 808-946-2875

동양관광여행사
항공권도매/섬일주/이웃섬 관광/호텔예약 944-3949/info.orient1988@gmail.com

브라이언 오토 바디샵
자동차바디수리 ◦ 보험처리/친절상담 홍 프란치스코 / 836-5887

김남훈(베드로) CPA
회계감사, Book Keeping, 세금보고 947-2470

New York Life
은퇴연금/학자금/재산증식/무료상담차 그레고리오 / 226-3344

마마우 바비큐(타운에 위치)
케이더링, 가족행사, 각종 큰 행사 음식전문 예로니모/808-941-6262, 808-743-8200



구역 및 단체 모임 안내



알아봅시다

■故 이기환 부리모 형제님께서 지난 11월 28일(목) 향년 92세로 선종하셨습니다. 부인 이응례 마리아 자매님과 두분의 아드님과 세분의 딸님이 계십니다. 장례미사와 연도 날짜는 추후에 공지하겠습니다. 고인을 위하여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1) 상임위원회 모임 안내

일시: 12월 8일(일) 교중미사 후
장소: 방명록 접수처

2) 성령기도회 모임 안내

일시: 12월 8일(일) 교중미사 후
장소: 성당

3) 다락방 모임 안내

일시: 12월 8일(일) 교중미사 후
장소: 컨퍼런스 룸

4) 전례위원회 확대 모임안내

일시: 12월 15일(일) 교중미사 후
장소: 새신자 교리실



재정위원회 2차 헌금 안내

12월 14/15일 Retriement Fund for religious를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11월30/12월1)\$8,421

주일헌금	교무금	2차 헌금	특별헌금
\$3,010	\$3,630	\$1,175	\$606

■ 대림절의 전례

4 주간의 대림시기 전례는 대림시기의 두 가지 성격을 잘 드러낸다. 전반부의 전례에서는 종말론적인 면을 강조하며 후반부는 임박한 구세주의 탄생을 준비하는 기간이다. 각 주일의 주제 역시 이같은 전례적 성격을 반영해 대림 제 1 주일은 언제 올지 모르는 구세주를 기다리는 교회의 종말론적인 자세를 강조하고 제 2 주일은 회개를 촉구한다. 제 3 주일은 구세주가 오실 날이 가까웠으니 기뻐하라고 권고하고 제 4 주일은 예수. 탄생을 예고하고 그분이 누구인지를 밝힌다. 미사와 성무일도의 기도문들은 주로 이사야 예언서와 세례자 요한의 설교로 구성돼 있다.

아울러 대림시기에는 회개의 자세를 강조하기 위해 제대 주위를 화려하게. 하는 것은 피하고대영광송도 하지 않는다. 오르간을 포함한 악기는 성가를 도와주는 역할에 국한하고 단독 연주는 피한다. 사제는 회개와 속죄의 뜻으로 자색 제의를 입는다. 대림초는 사월나무 위에 4 개를 마련하는데 구세주의 탄생이. 임박함을 알려주기 위해 매주 촛불을 하나씩 늘려 켜나간다. 사월나무는. 인간에게 내려질 새 생명을 뜻하고 4 개의 초는 구약의 4 천년을 의미한다. 대림시기는 특히 성모 마리아와 구원의 신비가 지닌 관계를 두드러지게 보여준다. 마리아는 구세주를 맞이 위해서 준비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모범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회는 대림시기 중 거행되는 성모의 원죄 없으신 잉태 대축일이 구원의 신비 중 한 부분을 구현하는 축일로서 허용하고 있다.

출처 가톨릭 신문

ARBOR Financial Group NMLS# 236669
심소영: 주택융자담당
Cel:(808)798-5100
Email:sharis@arborfg.com

최 니콜 부동산
Locations,LLC Cell 225-5566
www.ChoiHawaii.com
nicole.choi@locationshawaii.com

메디케어 보험
(65세 이상 및 장애인)
한국어, 영어 가능(심 크리스티나)
Shari Shim / 798-5100

메리장 가정의학 클리닉
내과, 소아과, 산부인과 진료합니다
예약전화 808-941-7799

A'ALA Meat & Seafood Inc
문의전화 808-452-8473 서삼렬 사무엘
samseo@aalameatandseafood.com

보나 최 부동산
문의 전화 808-636-5217
bona.choi@cbpacific.com
Coldwell Banker P.P.



[내 교무금의 모든 것 - 교무금 의미와 해법]

교회 원동력 '교무금', 부담감 대신 바른 인식 가져야

교회 운영 활동비는 그리스도인 의무 중 하나
월 가정 총소득의 1/30 봉헌 권장 ... 교육 필요

■ 교무금은 신자의 품격

신자로서 마땅히 교회 유지비를 내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여섯 가지 의무 중 하나다. 「한국천주교 사목 지침서」에서도 “신자들은 주교회의나 교구의 규정에 따라 교무금, 주일 헌금, 기타 헌금과 모금 등으로 교회 운영 활동비를 부담해야 한다”(165조)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교회가 교무금을 강조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자원이라는 의미다.

실제로 교무금은 교회를 움직이는 원동력이다. 본당 사목과 복음화 활동, 시설 확충과 유지, 본당 사목자 생활비와 직원 인건비 등은 물론 교구 발전과 유지까지 교회 활동 전반에 교무금이 사용되지 않는 분야가 없을 정도다.

문제는 교무금 납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정확한 수입과 예산을 가늠할 수 없어 본당 사목계획과 연간 행사 등을 수립하기 어렵고 근본적으로는 본당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신자들 역시 교무금 책정을 당연한 의무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그에 대한 부담감도 적지 않다. 교무금에 대한 수많은 오해 때문이다. 가장 큰 오해는 미납 교무금. 갑작스런 수입의 감소나 가정 형편의 변화로 교무금을 연체하다 냉담에 빠지는 이들도 많다. 신자들이 자발적으로 책정한 교무금을 완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미납 교무금에 대한 책임을 규정한 제도는 없다. 밀린 교무금에 대한 부담으로 신년도 교무금 책정을 미루거나 신앙생활을 그만두는 일이 없어야 하기에 교회 차원에서 배려한 것이다. 신자들이 오해를 갖게 된 데는 교회도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교무금이 신자의 의무라면서도, 제대로 된 교육 프로그램조차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사목자들 사이에서도 관련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을 통해 정확한 이해를 돕는 한편 확고한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사목자가 아닌 평신도가 주체되어 교육을 주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가톨릭사목연구소 부소장 박선용 신부는 “공동체 운영은 평신도들이 담당하고 사제들은 사목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이제는 마련해야 할 시기”라며 “이와 함께 교무금을 비롯한 헌금에 대한 개념을 알리는 교육을 평신도들이 주체가 되어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무금 사용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투명한 결산이 신자들의 자발적인 교무금 책정을 독려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 교무금, 나만의 기준을 만들자

교무금의 핵심은 액수가 아니다. 신자들의 마음에 있다. 성경에도 ‘가난한 과부의 헌금’(마태 12,41-44, 루카 21,1-4)을 통해 그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교회는 신자의 의무를 강조하면서도 교무금 액수에는 유연한 입장을 취한다. 일반적으로 수입의 삼십분의 일을 봉헌할 것으로 권장하고 있다. 적어도 한 달(약 30일) 중 하루만큼은 하느님께 바쳐야 한다는 뜻이다. 여기서 수입은 가정의 소득만이 아니라 한 가정의 총소득을 의미한다. 아울러 교무금 책정에 앞서 신자들이 알아야 할 것이 있다. 교무금은 원칙적으로 자기 수입의 일부를 ‘자신을 위한 지출에 앞서’ 바쳐야 한다. 자기 수입 중에 남는 것을 계산해서 바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헌해야 한다. 교무금을 충실히 내는 것은 건전하고도 올바른 신앙생활의 표현이며 하느님 자녀로서의 도리다.

■ 교무금, 어디서 왔니?

교회법 제222조 1항에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교회가 하느님 경배, 사도직과 애덕의 사업 및 교역자들의 합당한 생활비에 필요한 것을 구비하도록 교회의 필요를 지원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이 내용이 꼭 ‘교무금’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 교무금은 한국교회 고유의 문화다. 교무금이라는 고유한 전통은 외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탈리아와 독일 등 유럽 각국은 종교세라는 명목으로 나라에서 세금을 걷고 있으며, 미국교회는 신자들이 내는 기부금과 주일 봉헌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이렇듯 각 교회마다 교회유지를 위한 방법이 다르다. 교무금 제도가 변경·정착된 시기는 1931년 열린 ‘전 조선지역 시노드’라고 「가톨릭대사전」에 기록돼 있으며, 이듬해 반포된 ‘한국교회 공동지도서’ 제450조에는 교무금에 대해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교무금은 신자의 의무이다. 하지만 과거 신앙선조들이 희생과 봉헌으로 지켜온 ‘교무금’ 문화는 현대 신자들이 이어가야 할 전통이기도 하다.

이지연 기자

Business Insurance Service, Inc 보험 컨설팅, 상가·집·자동차 보험 사도요한 김형섭 /599-9810, 592-5011	이한주 마태오 재정설계 상속,절세,로펌케어,생명보험,연금, 학자금 carlitos3840@gmail.com/213-321-8787	뷰티터치(BEAUTY TOUCH) 한국 화장품 종합 백화점 문의: 임영림 안나 Tel:(808)271-4802
(주)에이스원글로벌(사슴태반 전문기업) “당신의 건강과 아름다움을 지켜드립니다” youngminina@gmail.com 문의:류영미 마리아막달레나 808-398-1275	Ginzawon(긴자원) Korean B.B.Q(Waikiki) 문의: 김태영 안토니오 808-220-0768 808-922-3387	묘지매매 묘지: korean Memorial Garden Lot 39 Section B Sites 1,2,3,4 , (판매) 가격 절충 가능 문의: 심소영/ 808-798-5100